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12월 4일(주일) 제1126호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지난해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12월 12일~1월 21일 오전 5시 20분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시작된다. 12월 12일부터 2017년 1월 21일까지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오전 5시 20분에 진행된다. 해외 비전교회에서는 나라별 시차에 따라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동참한다. CGNTV는 40일 동안 새벽기도회 실황을 전 세계에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의 주제는 '돌이키면 살아나리라'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2017년을 앞두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개혁의 메시지를 신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선포할 예정이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을 주제로 말씀을 선포한다. 또한 이기복 교수, 김하중 장로, 이영표 선수(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등이 강단에 올라 간증을 할 예정이다. 12월 24일에는 서서평 선

교사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상영된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는 요일별, 주제별 중보기도도 한다. 월요일 나라와 민족, 화요일 차세대, 수요일 선교, 목요일 교회, 금요일 가정, 토요일 통일이라는 기도제목을 놓고 뜨겁게 중보기도 한다.

특순도 풍성하다. 권사성가대, 포에

버성가대, 온누리장로합창단, 일본어 예배성가대, 온사랑합창단, 교역자합창단 등이 총출동한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지난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이용경 장로 CGNTV 대표이사 취임

“하나님과 소통하는 CGNTV 만들 것”



이용경 장로(서초B공동체, 사진)가 CGNTV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지난 12월 1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CGNTV 대표이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이용경 장로가 취임하고 유재건 장로가 이임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마땅히 갈 길을 가리라'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세상을 복음으로 품고 생명을 낳는 CGNTV가 되도록 소명을 향해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나

아가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이용경 장로는 취임사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CGNTV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유재건 장로는 이임사에서 "CGNTV와 함께 한 지난 4년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

CGNTV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용경 장로는 제18대 국회의원이자 IT 전문가이다. 前 KT 대표이사, KTF 사장, 카이스트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엔젤트리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사회선교부, 본당과 로비에 사연게시판 설치

사회선교부에서 엔젤트리(Angel tree) 후원자를 애타게 찾고 있다. 엔젤트리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성탄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다. 평소 이웃들을 돕고 싶었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던 성도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다.

사회선교부는 지난 주일(27일)부터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과 로비에 사연게시판을 설치했다. 참

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연게시판에 게재된 사연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는다. 후원자 카드에 이름과 연락처, 사연숫자를 기록하고 엔젤함에 넣은 다음 천사그림 카드를 엔젤트에 달아준다. 엔젤트리 담당자들이 후원자에게 선물 보낼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해 준다. 후원자는 사연카드에 기재된 선물을 5만원 이내로 구입해서 일주

일 안에 해당 주소로 발송한다. 엔젤트리폰으로 '사연번호와 함께 사연 발송 완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문의: 02-3215-3355

엔젤트리폰: 010-7368-9101

확대당회

일시: 12월 10일 토요일 오전 6시

장소: 서빙고 두란노홀

대상: 전임교역자, 사역, 시무, 명예, 협동장로

기획_국내 캠퍼스 순방 '양지 온누리교회' 4-5면 사역_온사랑합창단 6면 전도_맞춤전도집회 '버킷리스트' 7면

목상하는 목수를 찾아서 8

목상하는 농부 박대호 장로, 정선희 권사 부부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



목상하는 목수를 만났다. 일터에서 성공적으로 일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진짜 목상하는 목수 말이다. 그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고,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궁금했다. 이번에는 목상하는 농부다. 선교사, 외국인, 개인에게 자연농법을 전수하고 있는 박대호 장로와 정선희 권사 부부가 주인공이다. 그들이 땀 흘려 농사짓는 것은 또 하나의 선교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안성 CHE(Community Health Evangelism, 지역사회개발선교) 훈련센터’에서 박대호 장로와 정선희 권사 부부를 만났다. 여기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안성농장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안성 CHE훈련센터에서는 선교사, 외국인, 개인에게 자연농업을 전수해주고 있다. 농약이나 화학비료 없이 토착미생물을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이 바로 자연농업이다. 바로 이 농법이 선교지에서 주목받고 있다. 물자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파키스탄, 네팔, 르완다, 세네갈 등지에서 자연농법에 관심을 갖고, 직접 훈련을 받기도 했다.

엔지니어에서 농부로

박대호 장로와 정선희 권사 부부는 농부가 아니었다. 농업을 전공하지도 않았다. 박대호 장로는 34년 동안 플랜트 엔지니어(Plant Engineer)로 살았다. 해외에 정유공장이나 석유화학공장을 설계하고 건설까지 해주는 일을 했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냈다. 농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그런 그가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 건설회사에서 일할 때였다. ‘바이오디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맡았다. 그 프로젝트는 ‘자트로파’라는 나무 씨앗에서 나오는 기름을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캄보디아에서 적절한 땅을 찾고 자트로파를 기르기 위해 농업공부를 했다. 그때 토착미생물을 활용한 자연농업을 깨우쳤다.

교회에서는 CHE 팀장, 2000선교 대표 장로로 섬기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만났다. 자연

스럽게 선교사들로부터 선교지 사람들의 어려움을 소상히 듣게 됐다. 무엇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다. 그것을 해결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교라고 생각했다.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찾은 것이 바로 자연농업이었다.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면 전도가 힘들죠. 그렇다고 무작정 구호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들을 훈련시켜서 자립시키는 총체적인 선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연농법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 마침 온누리교회가 관리하고 있는 안성 땅이 있었다. 그곳에서 자연농업을 시작했다.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일일이 손으로 농사를 지었다.

“기계를 사용하면 수확에만 관심을 두게 됩니다. 하지만 손으로 농사를 지으면 자연과 친밀해지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수확을 많이 거둬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갑자기 농부가 된 남편을 아내의 어떻게 생각했을까. 도시에 살다가 귀농하겠다는 결정이 어렵지 않았을까. 박 장로는 안성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아내 정선희 권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멋있는 정자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서 책 보면서 내 곁에 있어주기만 하세요.”

정 권사도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아니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 어느새 정 권사도 농부가 되어 있었다. 자연농업이었기에 변화가 가능했다.

“캄보디아에서도 어깨너머로 농사 짓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제가 직접 농사를 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자연농업 원리가 성경의 원리와 같더라고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농사짓는 것이 재미있더라고요. 미생물을 배양하고, 땅이 회복되고, 식물을 양육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반쪽짜리 신앙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변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 권사의 말처럼 자연농업이 전도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외국인들에게 미생물을 설명하다보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국에서 만든 미생물을 고국으로 가져가려는 사람들에게 그곳에도 미생물이 있다고 설명하면 깜짝 놀란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미생물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고, 알게 된다.

성실과 순종 그리고 청년들에게

정 권사는 농부로 살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더욱더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찾고, 최선을 다하다보면 다른 일이든지 사람들과 연결이 됩니다.”

박 장로 부부는 안성에 오자마자 이웃들의 일을 거들었다. 이웃들과 교제하면서 농사도 배우고, 농촌문화도 체험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농사 짓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박 장로 부부를 칭찬했다. 자기네 일을 도와줄 일꾼으로 점찍기도 했다.

“남편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하고요. 해외출장을 가면 지도를 펼쳐놓고 주일예배를 드릴 교회를 찾아놓고 일을 시작할 정도니까요. 회사일이 아무리 바빠도 순장이나 다락방장 제의가 오면 순종했

어요.”

박 장로는 직장도 신앙을 따로 생각하면 삶이 힘들어진다고 했다. 둘은 떼려야 뗄 수 없고 동시에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면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일과 신앙생활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신앙이 참 깊다. 아내는 기도를 참 많이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 관심사도 같다. 이들 부부는 청년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시대 청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볼품없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지를 여쭙아 합니다.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고민이 많고, 좌절도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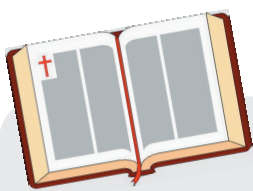
“요즘 청년들은 기성세대의 젊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죠. 그런데 청년들도 기성세대와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기성세대의 잘못된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 장로 부부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청년들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라는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잠재능력이 발휘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아파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귀농한 우리 부부가 근사한 농부로 성장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시대 요셉을 추천 받습니다

문의: khj@onnuri.org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어떤 사람이 친구가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집으로 이사 가기를 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집을 팔아달라고 부탁하고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만족할만한 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신문에서 본인이 만족할만한 집을 찾았습니다. 부랴부랴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해서 신문에 나온 그 집을 빨리 살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의뢰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집은 당신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만족이 없는 우리의 삶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온도와 관련된 두 개의 기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도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온도조절계입니다. 같은 기계인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온도계는 현재의 온도를 보여주는 기계입니다. 날씨가 추우면 온도계가 내려가고, 날씨가 뜨거우면 온도계가 올라갑니다. 날씨를 있는 그대로 반영해줍니다. 온도조절계는 정 반대입니다. 밖이 추워도 따뜻하게 만들 수 있고, 더워도 시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 주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반영할 뿐입니다. 기분 나쁜 상황이면 기분 나쁘고, 기분 좋은 상황이면 기분이 좋습니다. 온도조절계 같은 사람은 정 반대입니다.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슬픔 가운데 있어도 기쁨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온도조절계가 생각합니다. 그가 처한 환경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뻐했습니다. 온도조절계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태생적으로 낙천적이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궁핍하므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11절).

잡초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자랍니다. 가꾸지 않아도 알아서 잘 자랍니다. 그런데 귀한 열매를 맺는 나무는 가꾸어야 잘 자랍니다. 공을 들여 재배해야 합니다. 값진 열매일수록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평과 불만은 아무런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내버려 두면 자랍니다. 그러나 감사와 기쁨은 배워야 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값

비싼 훈련을 통해 감사와 만족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만족은 자기 안에서 얻는 만족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만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13절).

13절은 많은 오해가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지지하는 구절이며,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없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십시오. 12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일차적인 문맥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차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감사와 기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만족

사도 바울이 배운 만족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 인생의 가치를 환경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12절).

솔로몬은 인생의 만족을 찾아 모험했고,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여러 시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을 대충 살다 마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인생의 만족이 무엇인지를 추구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는 수천 수만 개의 잠언을 말할 수 있었고, 자연과학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의 인생 전반부는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는 어그러진 것과 구부러진 것을 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사용한 것이 쾌락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눈이 원하는

만족의 기쁨

빌립보서 4:10~23

“만족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섬기고, 도우십시오. 그것이 만족의 기쁨을 증거하는 것이고,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것을 금하지 않았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세 번째 수단은 일입니다. 재물과 지혜를 가지고 많은 일을 해보았지만 밤에도 마음이 쉬지 못하고 근심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으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전 2:24).

만일 우리가 재물, 명예, 권력 등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만족을 그런 것으로 얻을 수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만족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만족은 가난한 사람도 부하게 만들지만 불평은 부자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만족을 누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돕기

사도 바울의 삶의 비결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도운 것입니다. 그는 복음전파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여러분이 내 환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음 전파 활동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동참한 교회는 오직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한두 번 내가 필요한 것들을 보내 주었습니다”(14~16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 중 하나는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받은 후원에 대한 확인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확인 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뢰아로 갔고, 베뢰아에서 아테네로 갔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서 쉽게 소식을 전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통신수단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뢰아로 가고, 아테네로 갔을 때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위치를 알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치를 알려면 누군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사도 바울을 뒤쫓아가서 그가 어디로 갔는지를 확인을 하고, 안부를 묻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 일에 헌신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는 빌립보교회 성도들의 파송을 받아서 사도 바울의 안부를 살피고, 도와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로 가고, 베뢰아로 가고, 아테네로 가는 사도 바울을 놓치지 않고 추적해서 도와준 교회는 빌립보교회가 유일했습니다. 빌립보교회 성도들은 늘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기에 기회가 생기면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은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원칙이 자비량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급자족이 원칙이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불신자들이 사도 바울이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을 알면 오해할 수 있고, 그것이 복음전파에 장애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들로부터 후원을 받으면서 그 원칙이 깨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중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빌립보서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원칙을 깨면서까지 빌립보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받았을까요. 액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빌립보교회 성도들의 후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귀한 헌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원칙을 깬 것입니다. 자신의 원칙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봉사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17~18절).

‘향기로운 제물’은 구약의 제사용어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다섯 가지 제사(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세 가지 제사(번제, 소제, 화목제)에서만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왜 향기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향기는 어디서 나오니까. 자원함에서 나옵니다. 부득이함과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무런 향기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강요에 의해서,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것은 향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는 철저히 자원함입니다. 어떤 계기는 있을 것입니다.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13면에 계속)

선교, 그 거룩한 꿈과 비전을 향하여 ‘양지 온누리’

We're
The
Onnuri

기획_국내 10개 캠퍼스순방
7 양지 온누리교회

본지에서는 예수바보행전을 써내려가고 있는 국내 10개 캠퍼스를 순방하고 있다. 어떤 성도들이 어떤 모양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교계에는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일곱 번째 주 인공은 2012년 창립한 양지 온누리교회다. 성도 6백 명이 예배드리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선교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무릎으로 동참하는 성도들 다음세대에 신앙 전수, 지역사회와 교회 섬기는 일에도 으뜸



양지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선교.

양지 온누리교회는 전원(田園)교회이다. 한적한 시골에서 열방을 품고 있는 작지만 웅대한 교회다. 양지 온누리교회는 선교를 위하여 태어나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먹고 자라고 있다. 양지 온누리교회가 위치한 Acts29 비전빌리지에서부터 하용조 기념채플, 하용조 목사 묘로 이어지는 코스는 선교열정을 불태우고, 선교사로서의 꿈을 키우는 영적산책로가 따로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또 누군가가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중보기도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다.

작지만 웅대한 바로 그 교회

양지 온누리교회는 지역교회와 온누리교회 선교비전이 만나서 태동했다. 1975년 8월 15일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추계리에 ‘낙원벤엘교회’라는 조그만 교회가 세워졌다.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정이숙 권사가 이곳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주민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세운 교회다. 저명한 목회자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교회와 선교에 대한 비전을 키우는 장소이기도 했다.故 한경직 목사,故 옥한흠 목사 같은 한국교계를 이끌던 리더십들이 이곳을 찾았었다.故 하용조 목사도 자주 애용했다.

1996년 벤엘교회 운영을 온누리교회에 위탁하면서 ‘온누리벤엘교회’가 세워졌다. 온누리교회는 그해 6월 8일 이곳에 ‘온누리이전만훈련원’을 개원했다. 그때부터 선교기관의 면모를 다져나가기 시작했다. 2002년 4월에는 ‘온누리이전만훈련원’의 이름을 ‘온누리세계선교센터’로 변경했다. 그때부터 온누리세계선교센터에서 와이미선교와 OSOM(장기선교사훈련)이 실시되었다. 2005년에는 낙원벤엘교회 소속 성도들이 전원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 됐다. 2010년 Acts29 비전빌리지가 완공되면서 ‘온누리벤엘교회’는 ‘Acts29 비전빌리지’로 또 한 번 거듭났다. 그리고 2012년 2월, 온누리교회 9번째 캠퍼스 ‘양지 온누리교회’로 발돋움했다. 2013년에는 두란노해외선교회(TIM)가 입주하면서 양지 온누리교회, Acts29 비전빌리지가 더불어 온누리교회 대표 선교기관이 한 지붕 아래에서 사역하게 됐다.

양지 온누리교회는 Acts29 비전빌리지, 두란노해외선교회, 선교재단과 함께 선교사들을 섬기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세대를 양육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해외선교는 물론 지역사회 섬김에도 앞장서고 있다.

커다란 아름다리나무 터널을 지나자 양지 온누리교회가 위치한 Acts29 비전빌리지가 보였다. 부모의 손을 잡고 뛰노는 아이들과 인자한

어르신들의 모습이 전날 내린 첫 눈과 어우러져 여기가 진정 천국이라는 확신이 들게 했다. 양지 온누리교회는 넓고 여유 있는 공간이 매력적이었다. 눈을 돌리는 곳마다 아름다움을 뽐내는 자연경관도 놓칠 수 없는 매력이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색다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부러웠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가는 일은 나들이 가는 것처럼 신나는 일이다. 자연 속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낭만도 즐길 수 있으니 오죽할까. 아이들은 드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어른들은 깊고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곳곳에 있다.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하루정도 묵어가면 좋은 교회가 바로 양지 온누리교회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들

양지 온누리교회의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바로 자연스럽게 선교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양지 온누리교회, Acts29 비전빌리지, 두란노해외선교회가 한 지붕 아래에 있다 보니 이곳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선교를 생각하게 만든다.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선교는 삶이다. 매주 선교사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다. 차세대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가장 친한 친구는 선교사 자녀들이다.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들과 교제하면서 어려서부터 선교의 중요성, 필요성, 당위성을 배워가고 있다. 이처럼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선교를 배우고, 소망하면서 선교사의 꿈을 키우고 있다. 그 중심에 시안열방예배가 있다. 시안열방예배는 365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예배다. 선교지의 영적흐름과 긴급한 기도제목을 놓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 시안열방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선교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무릎으로 동참하게 된다. 선교와 함께 성장하고, 선교를 위하여 사역하는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선교는 삶 그 자체다.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정영열 장로는 올해 70세가 넘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고 아프리카로 떠났다. 지금은 네팔 고레다라 마을에서 지진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있다. 올 가을 네팔에서 정 장로를 만났는데, “선교할 수 있어 행복하고,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힘이 난다”고 고백하던 그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하다.

6개월째 양지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한 성도는 “70살이 넘었지만 선교지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졌다”고 고백했다.

Acts29 비전빌리지 뒤편 산길을 오르면 故



양지 온누리교회 전경.



어린이 주일을 맞아 교회에 놀러온 아이들.

하용조 목사의 묘와 하용조 채플이 있다. 양지 온누리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빼놓지 않고 방문하는 곳이다.故 하용조 목사가 꿈꾸던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신앙과 선교열정을 되돌아보게 된다. 그곳에 가면 하용조 목사가 힘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선교 포기하지 마십시오. 헌신하십시오.”

365일 말씀을 먹고 마시는 성도들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선교열정의 근간은 말씀이다. 말씀을 먹고 마시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모른다. 올해부터는 ‘365성경통독’을 시작했다. 성도 모두가 성경통독을 해서 총 365독을 하는 것이 목표다. 지금까지 155독을 했다. 그렇게 성경통독을 하면서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고 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열매다.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는 성도들을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다. 성경통독의 두 번째 열매는 교회와 가정에 말씀이 풍성하게 넘친다는 것이다. 성헌이네(초3)는 온 가족이 성경통독을 하고 있다. 성헌이는 양지 온누리교회에서 최연소로 성경통독을 한 성도로 기록되어 있다. 성헌이에게 성경통독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성경이 재미있어서”라고 했다. 홈스쿨을 하고 있는 성헌이는 매일 성경을 9장씩 읽었다. 처음에는 지루하던 성경 읽기가 점점 재밌어졌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

문이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만난 예수님의 능력이 놀랍고 신기했다. 또 성헌이에게는 병원에 가도 낫지 않던 사마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씻은 듯이 나았다.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마신 성헌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꼈다고 했다. 성헌이네 가족들은 모일 때마다 성경이야기를 한다. 성경읽기가 놀이요, 공부이다. 성헌이 엄마는 “가정이 바로 서고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방법은 성경이 최고”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양지 온누리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통독을 끝내면 성경필사본을 만들 계획이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경을 필사해서 만든 성경책을 내년 크리스마스에 봉헌할 예정이다. 성경과 말씀을 사랑하는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멋진 선물이 될 것이다.

가장 재미있는 친구, 가장 좋은 어른들

또한 양지 온누리교회는 차세대가 행복한 교회이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바로 양지 온누리교회다. 차세대에게 건강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헌신하고 있다. 차세대를 돌보는 일도 중요한 선교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지 온누리교회는 매월 넷째 주일을 ‘가족주일’로 지정했다. 온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차세대들이 찬양인도, 특송, 공연을 하고, 어른들은 차세대들을 위해 기도한다. 모두 함

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인공동체와 차세대가 하나 되는 유익이 있다. 또 모든 성도들이 책임감 있게 차세대들을 돌보기 때문에 부모들의 짐도 가볍다. 부모들이 아이들 돌보느라 사역과 양육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필요가 없다. 모든 성도들이 지켜주고, 아이들은 교회에서 마음껏 뛰어놀아도 될 정도로 넓고 안전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차세대들은 양지 온누리교회를 가장 재미있는 친구, 가장 좋은 어른들이 있는 곳으로 기억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회에 친구들을 데려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불과 5년 전만해도 양지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중고등부)에 출석하는 청소년들이 5명이었다. 담당 교역자 혼자 찬양하고, 헌금도 걷고, 공과공부도 했다. 지금은 20~30여 명의 중고생들이 출석하고 있다. 양지 온누리교회 차세대들도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마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파워웨이브는 QT교재 <새벽나라>를 한 층 업그레이드해 공과공부를 하고 있고,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초등부)은 말씀암송에 집중하고 있다. 성경통독 붐이 일고 있다. 예수님의꿈아이(유아, 유치부)는 부모와 함께 성경의 9가지 열매를 삶으로 실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웃들에게 더 가까이, 더 따뜻하게

양지 온누리교회의 선교 열정은 해외선교에만 국한되어있지 않다. 지역사회를 돌보는 일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문화교실과 예술클럽(기타, 미술)을 개설했다. 여름이면 주변 계곡을 내 집 마당처럼 깨끗하게 청소한다. 이외에도 요양원 섬김, 여주교도소사역, 농번기 새참대접 등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성도들이 봉헌한 쌀을 이웃교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이주민사역도 활발하다.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하던 최명현 선교사를 중심으로 이주민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이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외투를 선물했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열심이다. 지난달 20일에는 맞춤형도집회 ‘행복예감’을 개최했다. 믿지 않는 이웃, 직장 동료 48명이 참석했다. 11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21명이 교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또한 이번 맞춤형도집회 행복예감에서 교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고백한 주계리 주민 A씨가 지난 주일 난생 처음으로 주일예배를 드렸다. A씨는 교회와 감정의 골이 깊었던 사람이다.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는 얼굴을 비추지도 않았다. 마을에 버려진 쓰레기만 봐도 “교회에서 버린 것 아니냐”며 따질 정도였다.

함선호 장로가 수년간 A씨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면서 맞춤형도집회에 초청했다. 맞춤형도집회에 참석한 A씨가 “그동안 교회에 오해가 많았던 것 같다”며 활짝 웃었다고 한다. 이 일을 계기로 양지 온누리교회는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을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도육환 목사

양지 온누리교회에는 먼 곳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강원도 횡계, 충청북도 진천에서 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면 늘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멀리서 양지 온누리교회를 찾는 성도님들께 늘 주와 동행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사역팀, 공동체를 섬겨주신 리더십과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헌신 덕분에 교회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에도 지금처럼 섬겨주시고, 헌신해주십시오. ‘사도행전29장’, ‘예수바보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양지 온누리교회가 지역교회를 넘어서 열방을 품는 선교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필사성경을 만들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책임분량을 맡아서 성경을 필사하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 아끼예수님께 올려 드릴 것입니다. 필사성경은 양지 온누리교회가 말씀중심의 교회로 세워지는데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들

도육환 담당목사
이강현 전도사
조성광 목사

이은미 전도사
서영철 전도사
양승순 전도사

나는 이래서 양지 온누리교회가 좋아요!

양지 온누리교회만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차세대들이 있습니다. / 안태환 장로

온누리교회 선교의 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성지순례 하는 기쁜 마음으로 100리 길을 지나 양지 온누리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 차춘구 장로

선교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과 함께하며 도전을 받고 하나님나라 확장에 힘을 줄 수 있습니다. / 함선호 장로

365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시온열방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사 제쳐 두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제 가슴이 뜨겁습니다. / 정경열 집사

선교의 한 획을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그마하던 교회에 지금은 선교사들과 아이들이 가득한 곳이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 정이숙 권사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박진수 집사

온사랑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

“두현이 엄마니까...”

김은화 성도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 김은화 성도와 아들 배두현 형제.
◀ 지난 11월 19일 열린 정기연주회에서 Grace팀과 김은화 성도.

온사랑어머니합창단의 공연이 끝나자마자 달려갔다. 무사히 공연을 끝낸 소감이 어떨지 묻기 위해서였다.

“실내에서 인터뷰해도 될까요? 제가 찬바람을 쐬면 안돼서요.”

기자 손에 붙들린 이는 김은화 성도다. 제법 추워진 날씨에 감기라도 걸릴까봐 걱정하는 것 같아 카페로 안내했다. 둘이 마주앉아 차(茶) 향기가 그윽해질 즈음 그녀가 털어놓은 이야기를 듣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신실한 사람은 그녀가 처음이었다. 감히 눈물도 쏟을 수 없었다. 부끄러워서.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두현이는 태어나고 3개월 뒤에 퇴원해서 집에 왔어요. 그런데 집에 온지 하루 만에 문제가 생겼어요. 두현이의 몸이 급격하게 나빠졌거든요.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패혈증으로 인한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습시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하나님을 정말 많이 원망했다. 삶이 다 끝난 것만 같았다. 그 아픈 시간은 정말 무디게 흘러갔다.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두현이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러면서 조금씩 두현이가 무엇을 하면 좋아할지를 고민했다. 피아노, 바이올린, 수영 등 온갖 교육을 다 시켰다. 그런데 뭘 해도 반응이 없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꼈다.

“하나님께서 두현이를 만드셨으니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당시 다니던 복지관에서 우연히 어떤 분이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더니 자신은 온누리교회에 다닌다면서 온사랑합창단을 소개해줬다. 그때가 2011년이다. 두현이와 온사랑합창단은 그렇게 만났다. 온사랑합창단에 간 첫날 술하게 해오던 그 동안의 고민이 해소되었다. 두현이가 찬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2013년 온사랑합창단 제1회 정기연주회에 두현이가 무대에 선다는 것만으로도 은혜요, 감사였다. 두현이는 온사랑합창단에서 활동하면서 나날이 좋아졌다. 모호했던 발음이 명확해지고, 생각의 폭도 깊어졌다. 무엇보다 눈빛이 반짝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그만큼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청천벽력이었지만 그래도

지난 10월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안내 전화였다. 갑자기 무슨 건강검진이라며 나중에 받겠다고 거절했다. 온사랑합창단 정기연주회를 한 달가량 앞두고 있었기에 더욱 갈 수가 없었다. 그런데 병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건강검진을 받으면 할인을 해준다고 유혹했다. 그 말에 낚자를 잡고 건강검진을 받았다. 며칠 뒤 평소처럼 두현이와 함께 합창연습을 하고 있는데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대장암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면역력이 약한 아들 두현이를 20년 넘게 키우면서도 자신은 건강만은 자부했었다. 그런데 대장암이라니...

갑자기 찾아온 병마에도 그녀는 온사랑합창단 정기연주회를 떠올렸다. 그녀가 이번 정기연주회에서 Grace팀의 울동을 책임지고 인도하기로 한 약속 때문이다. 모든 것을 그

만뉘야 할 위기였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Grace팀 친구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들과 같이 함께 무대에 서게 해주세요.”

간절함을 뛰어 넘어 처절했지만 그녀의 항암치료 일정에 따라 정기연주회 참여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녀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항암치료 일정이 나왔는데 다행히 1차 항암치료가 정기연주회 바로 일주일 전이었다. 날짜가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항암치료를 받고 무대에 설 수 있었을까. 그녀는 MRI와 CT촬영을 하고, 1차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온사랑합창단 정기연주회에 꼭 참석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MRI를 찍는데 두현이가 생각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두현이도 어렸을 때 MRI를 정말 많이 찍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그 많은 주사를 맞고 MRI를 찍었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두현이 엄마인 제가 이것을 겁내고 힘들다고 포기하면 되겠어요?”

항암치료는 정말 아프고 힘들었다. 김은화 성도는 정기연주회 이를 전까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두현이 엄마니까.

“두현이는 더 힘든 상황도 다 이겨냈잖아. 나는 엄마이고 두현이 보다 힘이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어. 두현이에게 엄마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녀가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것이었다. 온사랑합창단과 예수사랑부 어머니와 교사들의 간절한 중보기도도 큰 힘이 되었다.

“요즘 몸이 힘들어서 새벽기도를 쉬려고 했는데 집사님이 생각나서 도저히 쉬 수가 없어요.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는 김은화 성도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떼서 주고 싶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기자에게 전하는 김은화 성도의 눈가에 굵은 이슬이 맺혔다. 벅찬 사랑에 목이 뎠다. 그동안 아들 두현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는 동역자들의 사랑까지 더해져 정말 행복하다고 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찬양을 하고 싶다고 했다. 아니 꼭 해야만 한다고 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기 때문이다.

감격과 감동 그리고 감사의 눈물

온사랑합창단의 이번 공연에는 김은화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고백도 담겨 있었다. 그 고백이 관객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또 화음은 고사하고 음을 내는 방법조차 몰랐던 온사랑합창단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다.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눈물을 참을 수 있는 관객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 함께 손뼉 치며 하나가 되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순간이었다.

온사랑합창단과 온사랑어머니합창단의 공연은 감동과 희망, 회복과 기쁨을 선물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온사랑합창단 정진웅 학생 아버지 정광섭 성도(화평교회)는 공연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기뻐는지 몰라요.”

또한 온사랑합창단의 제4회 정기연주회 ‘내가 매일 기쁘게’는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는 자리이기도 했다. 모든 이들에게 감동과 사랑, 도전을 준 온사랑합창단과 온사랑어머니합창단은 존재 자체가 기적이요, 눈물이다. 슬픔과 안타까움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과 감동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다.

50대 동기동창들을 위한 맞춤전도집회 '버킷리스트'

사랑하는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231명 참가, 81명 영접, 115명 긍정
(결신율 35%) (호감도 50%)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갔다. 굴러다니던 낙엽만 봐도 깔깔대고 웃어대던 여고 시절 말이다. 흰쌀밥에 반찬이라곤 볶은 김치, 계란 프라이, 콩자반이 전부였지만 그 어떤 값진 음식보다 맛났다. 양은 도시락에 음식이 담기면 왜 그렇게 맛있는지, 느끼한 DJ 오빠의 말 한마디에 얼굴이 홍시가 되고, 난생처음 가슴이 쿵 쿵거렸다. 그 시절 즐겨 들던 팝송은 또 왜 그렇게 좋던지...

남자들은 군대시절 친구를 잊을 수 없다. 고된 유격훈련도, 혹독한 얼차려도 동기가 있어 견딜만했다. 오늘 그때 그 시절 친구를 만났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참가자들이 교도시절로 돌아가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50대 동기동창들을 위한 맞춤전도집회 '버킷리스트'의 열매가 풍성했다. 전도대상자 231명 중 81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115명이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무려 85%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연 것이다.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한 비결은 친구와 함께였기 때문이다. 집회가 끝나자마자 버킷리스트 같은 친구초청 전도집회를 정례화하자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열매 또한 풍성했다.

드디어 때가 됐다!

맞춤전도집회 '버킷리스트'에 함께 참석한 친구들의 사연이 무척 재미있다. 40년 지기 고등학교 동창부터 사회 초년생 시절을 같이 보낸 동료, 군대에서 같이 훈련받은 동기까지 다양한 사연이 있는 친구들이 교회에 왔다. 사연은 달랐지만 마음은 같았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 말이다. 이날만을 기다렸다.

정원만 성도는 40년 지기 친구를 초대했다. 고등학교 다닐 때 함께 도시락을 먹던 친구다. 쉬는 시간마다 매점에도 함께 갔던 친구다. 당시 정원만 성도에게 여고 학생들과 미팅을 하자고 제안할 정도로 성격이 쾌활한 친구였다.

“절친한 친구가 간곡하게 부탁해서 난생처음 교회에 왔다. 어색하고 불편할 줄 알았는데 친구랑 함께여서 괜찮았다. 괜히 신이 나고, 행복하고,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볼거리와 먹거리도 풍성하고, 대접받는 느낌이 참 좋았다.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곳인지 처음 알았다.”

“그 당시 친구의 집안사정이 좋지 못해서 도시락을 못 싸오는 날이 많았어요. 배고픈 친구가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제 도시락을 나눠먹곤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반이 달랐는데도 그 친구와 저는 늘 같이 도시락을

먹었어요.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친구에게 교회에 가자고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 제사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했다. 또 그 친구는 한번 만나는 것이 힘들 정도로 바빴다. 어떻게 하면 친구를 전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맞춤전

“오랜만에 친구랑 단 둘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나누면서 맞춤전도집회 버킷리스트 이야기를 꺼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했죠. 친구가 깜짝 놀라더군요. 아무리 바빠도 꼭 가겠다고 대답하는 친구를 보고 드디어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됐다고 확신했죠.”

첫 술에 배부르지 않아도

방찬종 장로는 군대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전우 두 명을 초대했다. 군대시절부터 37년이나 이어온 친구다.

“유격훈련 받을 때가 제일 기억나요. 얼차려 받고, 눈물 젖은 찜밥을 먹으면서도 그 친구들이 있어 견딜만 했죠.”

방 장로는 이번 맞춤전도집회 버킷리스트 집회에 친구를 초대하려고 부단히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모두들 바쁘다는 핑계로 초청을 거절했다. 다행히 군대동기들이 응해줬다. 그 때나 지금이나 이 친구들 밖에 없었다.

“소원하는 것은 한 가지 뿐입니다. 소중한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성도는 온누리교회에 다니는 동창 두 명과 의기투합했다. 동창들끼리 테니스 모임에 이어오고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 한 명씩을 전담해서 데려오자고 합심했다. 땀속 깊이 인본주의자인 친구, 가족들은 교회에 다니는데 혼자만 안 다니는 친구, 교회와 신앙에 관심 없는 친구를 설득해서 데려왔다. 그렇게 모인 6명이 맛있는 식사도 하고, 연애인도 보고, 간증도 듣고, 설교도 들었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함께 사진도 찍었다.

“한 명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신했고, 또 한 명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는데 한 명은 반응이 없더라고요. 아쉬웠지만 첫 술에 배부른가요. 그 친구를 위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다음에 이런 집회를 또 한다면 더 많은 친구를 데려올 거고요.”

내 인생의 1순위 태희에게

태희야, 우리가 20대 때 회사에서 만나 친하게 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 서로의 삶과 인생을 나누면서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지. 기억나? 임원회의 때 우리 둘이 소곤거리며 웃다가 부장님께 혼났던 일 말이야. 어디 그뿐이니? 점심밥도 안 먹고 노래방 가서 실컷 노래 부르면서 스트레스 풀었던 일, 회사 사람들이랑 등산 갔다가 도망쳐서 반성문 써야 했던 일, 자매처럼 붙어 지내며 즐겁게 보낸 일들이 어제 일 같구나.

미국에 친정 식구들이 있는 나에게 너는 진짜 친가족 같았어.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우울증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네가 뛰어와서 내 가족보다 나를 더 챙겨주고, 병원에도 데려다줬었지. 그 사랑을 잊을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기쁜 생활 하고 있어. 이 기쁨을 너에게 전해주고 싶다. 태희야, 너는 내 인생의 1순위야. 그런 너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다. 사랑해.
/ 홍윤숙 성도

“사랑한다 상식아”

사랑하는 친구 상식아. 우리는 군대에서 만난 친구지. 군대에서 만난 친구를 아직도 만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의아해 하더라. 그래도 우리는 잘 만나왔구나. 그때 기억나니? 너는 위병소에서 근무하고, 나는 사무실에서 근무했지. 네가 힘들 때마다 내가 커피 타 줬었는데, 네 약혼식에서 내가 사회를 보고, 내가 해외 나가 있을 때 네가 일부러 찾아와 주기도 했지. 돌이켜보면 참 즐거운 추억이 많아. 그런데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 없더라. 그렇게 오랜 세월을 만났는데 말이야. 이번에는 꼭

같이 사진 찍자. 네가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해 왔는데 귀한 기회가 주어졌어. 가장 소중한 것을 너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불교 학생회장까지 한 너를 교회로 초대했어. 요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너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 힘든 시간,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으면 좋겠어. 이 시간이 너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영원히 친하게 지내자. 사랑한다 상식아!
/ 박경화 성도

북한 시장의 활성화, 체제변화의 신호탄인가?

통일위원회 통일세미나 ‘북한의 장마당(시장경제)과 사회변화’ 개최

통일세미나 ‘북한의 장마당(시장경제)과 사회변화’가 지난달 30일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개최됐다. 200여 명의 성도들과 시민들이 참석해 국내 전문가들과 탈북자들로부터 북한의 시장경제와 사회변화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북한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장마당’이다. 장마당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생긴 북한의 자유시장을 말한다. 북한의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면서 배급이 원활하지 않자 장마당이 활성화 되고 있다. 약 180만 명이 매일 장마당을 이용하고 있고, 지난달부터는 장마당을 2부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사회주의 이념에 반대되는 시장경제가 북한 내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통일세미나는 바로 이점에 주목했다. 북한의 장마당(시장경제)과 사회변화가 무엇을 의미하고, 장마당의 활성화가 북한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를 내다봤다.

통일세미나 1부는 최도성 장로(가천대학교 국제부총장)가 사회를 보고, 김병언 교수(서울대)가 ‘장마당과 북한경제’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정은이 교수(경상대)와 김병욱 소장(북한개발연구소)은 토론을 했다.

장마당 활성화와 그에 따른 변화

1부 강의를 한 줄로 요약하면 북한의 시장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시장 없이는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김병언 교수는 2004년부터 탈북자 2천명에게 북한에서의 비공식 경제활동을 했는지를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김 교수는 “북한 4인가족의 한 달 생활비가 50만원인데, 월급은 3천원에서 1만 5천원에 불과하다”면서 “나머지 소득은 비공식 경제활동으로 벌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소득 중에 비공



통일세미나에서 패널들이 열린 토론을 하고 있다.

식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73.4%나 된다. 비공식 경제활동의 종류로는 폐기발, 축산 장사, 직접생산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장사가 59.7%를 차지하고 있다. 김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 북한 주민들이 식료품 및 소비재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장(場)의 비율이 이 주장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배급을 통한 식료품 구입은 8.8%에 불과한데 장마당을 통한 구입은 64.5%나 된다. 배급을 통한 소비재 구입은 3.8%에 불과하지만 장마당을 통한 구입은 74.8%나 된다. 김 교수는 “북한주민들뿐만 아니라 지방산업공장, 중앙공업공장 같은 공식적인 경제도 비공식적 경제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기업들도 대부분의 자재를 비공식적 시장에서 조달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비율이 60.5%나 된다고 한다. 임금도 20% 근로자들이 비공식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나머지 80%의 근로자들에게 주고 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변화”라면서 “북한 주민들이 정권과 독립된 주체의식을 키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장마당의 활성화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욱 소장은 “대북체제가 강화된 최근에는 민생안정을 위하여 장마당에

대한 통제를 늦춰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장마당이 북한 체제에 영향 미치지만, 그렇다고 체제 변화로 보기에는 시기상조

통일세미나 2부는 황의서 장로(서울시립대 교수)가 사회를 보고, 현인에 객원연구위원(통일연구원)이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 흥민 연구위원(통일연구원)이 ‘북한 시장과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은 이한열 장로(중국일립그룹 부총재), 양운철 부원장(세종연구소), 김흥광 대표(NK지식인연대), 김형수 이사(북방연구회)가 했다.

현인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사회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인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식 변화가 그렇지 않은 주민들보다 훨씬 빠르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현 위원은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일수록 김정은과 당에 충성하는데 시장이 활성화 되고, 중산층이 생겨나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했다. 이 같은 현상은 “계급의식, 수령숭배심, 정치태도에 눈에 띄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같은 해석에 대해 흥민 연구위원은 “그렇다고 북한의 시장경제를 무조건 반체제적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하면서 “당경제, 시장경제, 내각경제, 군대경제는 공생적인 관계”라고 했다. 그 예로 아파트 건설 사례를 소개했다. “2000년대부터 이어진 북한의 아파트 건설 붐은 국가권력, 민간자본, 시장, 도시 관료가 결합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했다”면서 “돈이 없는 북한정부 명의로 개인사업자들이 돈, 자재, 인력을 투자하고 분양권을 얻고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인력시장, 자재시장,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도 장마당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북한 당국이 인민경제를 시장에 거의 맡긴 수준이며, 장마당에서 걷어지는 장세는 지방정부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시장화를 북한의 국가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보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또 있었다. 토론자 양운철 부원장은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좋아졌지만 그것을 북한 정권의 안위와 관련짓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황의서 장로는 “장마당과 시장경제는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고 정리하면서 “앞으로 북한의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부분을 알아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제언했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북한 주민들.

북한 이것이 궁금하다!

Q: 대북제재가 계속되면 북한이 개방을 할까요?

김병욱 교수: 대북제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도 김정은은 왜 핵을 계속 개발할까요? 장마당에서 민생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시장의 두 얼굴이 있습니다. 북한의 시장은 공산주의체제의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완충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은이 교수: 대북제재가 분명 북한체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중국에서 북한 주민들을 만나서 힘들지 않은지 물어보면 ‘자기들은 항상 제재 속에서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당장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대북제재는 분명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Q: 북한간부들은 시장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현인에 객원연구위원: 위로부터 시장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부들이 돈

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은 권력이 없어서 돈을 못 벌니다. 평양에 천만 달러 이상을 가진 사람이 열 명이고 천만 달러 정도 있는 사람이 백 명이라고 합니다. 이미 시장과 간부들은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시장이 북한체제를 유지하는데 위험이 있다고 해서 시장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Q: 탈북자들이 보내는 돈은 어떻게 전달됩니까?

현인에 객원연구위원: 북한에 돈을 보내는 것은 한국의 금융과 북한의 사금융 시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남한, 중국, 북한 사람들을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됩니다. 수수료가 상당합니다. 30~50%까지 받습니다. 북한의 화폐개혁 이후 북한돈은 사용하지 않고 달러나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1달러에 북한 돈 8천원 남짓입니다. 중국에 있는 한국은행으로 돈을 보내면 중국 브로커가 돈을 찾고, 북한에 있는 돈주에게 연락을 합니다. 돈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전달합니다. 그 돈은 주로 생활비로 사용됩니다. 예전에는 송금을 받는 주민들이 잘 살았는데, 요즘에는 장사하는 주민들이 더 잘 살고 있습니다.

M선교사 제도를 아시나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또 하나의 선교 ‘역파송’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주민이 171만 명(2015년 통계청 기준)이나 된다. 해마다 그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도 엄연한 다문화 국가다. 한국 땅을 찾아 온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섬기고, 돕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 역할은 교회가 가장 잘 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는 1995년부터 ‘온누리미션’이라는 이름으로 이주민사역을 시작했다.

온누리M센터는 2005년 개원했다. 현재 온누리M센터에는 10개 언어권에서 온 지체들을 위한 20개 예배공동체가 있다. 이주민을 돕는 대표 기관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온누리M센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M선교사 제도를 신설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M선교사’ 제도는 국내에 와 있는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가리킨다. 이미 한국에 수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이주민들이 온다는 것이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M선교사 제도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또 하나의 선교다.

1호 M선교사가 벌써 활동하고 있다. 윤용순 목사가 그 주인공이다. 윤용순 목사는 2012년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를 섬겼고, 오만에서도 목회한 경험이 있다. 올해 2월 입국해 훈련받고 8월부터 온누리M센터 캄보디아 예배를 섬기고 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을 보고 또 한번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M선교사가 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윤 목사는 이주민들을 전도하고, 고국으로 역파송하는 M선교사 활동을 하면서 장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고 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나라에서 전도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도가 자유롭습니다. 마음껏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윤 목사는 지금 이주민들이 성경을 쉽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양육체계와 교재를 연구하고 있다. 이주민들에게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그의 꿈이자 사명이기 때문이다.

이주민사역의 산증인 ‘온누리M센터’

지난 10년 동안 온누리M센터를 통해 이주민 1만 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선교사가 되어 가족, 친



왼쪽부터 은 전도사(베트남 예배), 윤용순 목사(1호 M선교사), 로시 전도사(미얀마 예배).

구,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메마른 땅에 시원한 빗줄기가 되고 있다. 온누리교회가 이 아름다운 사역을 시작한지는 20년이 훌쩍 넘었다.

온누리교회 이주민사역의 역사는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외국인 근로자를 돕기 위한 바자회가 그 시작이었다. 온누리교회 이주민사역 초창기에는 선교보다 금융에 초점을 맞췄었다. 1995년 온누리미션이 문을 열었고, 구로에 이주민을 위한 쉼터가 생겼다. 그때부터 미얀마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경기도 군포에서는 네팔에서 온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예배공동체가 만들어졌다. 그러다 2005년 경기도 안산에 온누리M센터를 개원했다. 올해 5월에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에 새로 건축한 온누리M센터가 세워졌다. 새로 건축한 온누리M센터는 교회가 아닌 것 같으면서 교회 같은 곳이다.

외관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이다. 십자가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외관만 보면 교회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른다. 바로 그곳에서 매주 주일이면 10개 언어권에서 온 이주민들이 20개 공동체로 나뉘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천국잔치가 따로 없다. 이주민들이 모이는 화합의 장이 되기도 한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주민들도 거리낌 없이 온누리M센터에 온다. 그만큼 온누리M센터가 이주민들에게 교회문턱을 낮추고, 성심성의껏 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온누리M센터에 가면 그 현장을 목격할 수 있다. 온누리M센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아진다.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기 때문이다.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온누리M센터에 들어서는 사람들에게는 천국미소와 함께 인사를 한다. 모두가 한 가족처럼 지냈으면 좋겠다는 온누리M센터 구성원들의 의지이기도 하다.

온누리M센터는 세 가지 비전을 품고 있다. 첫째, 차세대다. 다문화가정이 늘고, 한국으로 이주한 부모를 따라 온 이주민 자녀들도 증가했다. 부모를 따라 온 이주민 자녀들이 문화 차이, 정체성 혼란 등으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른다. 온누리M센터가 그들을 돕는데 앞장섰다. 2010년부터 ‘스타트리’라는 지역아동센터를 만들고 이주민 자녀들을 위한 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스타트리에서 공부했던 이주민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기도 했다.

둘째, 이주민 선교의 중심점이다. 이주민사역을 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환경이 열악하다. 돌봐주는 이와 섬기는 이가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이주민사역을 위한 전문성도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온누리M센터는 20년 동안 이주민사역을 이어오면서 수많은 노후를 축적했다. 이것을 다른 교회와 기관에 나눠주는 것이 두 번째 비전이다.

온누리M센터 담당 노규석 목사는 “양육 프로그램, 선교사 훈련, 전도지, 외국어 성경 등 필요한 자료들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주민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온누리M센터를 중심으로 김포, 화성, 송도, 남양주, 평택, 경기 북부 지역을 6대 거점으로 선정하고 더 열심히 이주민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계획이다.

셋째, 역파송이다. 온누리M센터에 오는 이주민들은 초신자들이 많다. 온누리M센터에 와서 복음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현재까지 25개국에서 온 이주민 500여 명이 온누리M센터를 통해 세례를 받았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바로 역파송이다. 그동안 28명의 이주민들이 역파송 선교사가 되었다.

역파송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들

고국으로 역파송 된 선교사들의 활약이 대단하다.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의 말에 따르면 네팔에 역파송된 지체 혼자 교회 12개를 개척했고, 한 지체는 이라크 북부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가 3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인지 모른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고국으로 돌아가 복음 전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주민들도 한두 명이 아니다. 온누리M센터에서 베트남 예배를 섬기고 있는 은 전도사도 역파송 선교사가 되는 그날을 꿈꾸고 있다. 그는 2013년에 신학공부를 하러 한국에 왔다. 그는 대학생 때 하나님을 만났다. C.C.C라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확인했다. 그 감격을 혼자만 간

직할 수 없어서 가족들을 전도했다. 부모님과 남동생을 전도해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났다. 그가 온누리M센터에 온 것은 2014년이다. 네팔 공동체를 섬기고 있던 동료 신학생이 소개해줬다. 온누리M센터에서 베트남 예배 개척을 시작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전통적인 불교 국가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그리 녹록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전략을 세웠다.

“먼저 그들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로 작정했어요. 그런 다음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베트남 예배가 시작되었다. 어려움은 계속되었다. 새신자들은 기도와 찬양을 어떻게 하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를 몰랐다. 온누리M센터 구성원들과 베트남 예배공동체 소속 이주민들이 하나 되어 하나부터 열까지 배우고, 성장했다. 그 결과 지금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미얀마 예배를 섬기고 있는 로시 전도사도 곧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녀는 지난해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에 신학박사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 미얀마 예배에는 35명의 지체들이 예배드리고 있다. 그녀에게 미얀마 예배는 신앙이 무력무력 자라는 발이었다.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미얀마 형제가 온누리M센터에 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소중히 읽으면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세례도 받았어요. 미얀마 예배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자주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온누리M센터는 축복의 장소다. 진심으로 반겨주고,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이보다 좋은 곳은 없다고 믿는다. 그녀는 12월 졸업하자마자 고국으로 돌아 갈 예정이다. 교회를 섬기거나 성경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녀의 다음 사역지가 될 전망이다. 그녀의 꿈이 무엇이나고 물었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했다.

“온누리M센터에서 받은 축복을 고국으로 돌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예수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장로

장로아카데미 참가자 39명 전원 수료

장로아카데미가 지난달 29일 중강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드린 장로아카데미 종강예배는 유재홍 장로의 찬양, 당회서기 정과중 장로의 기도, 이재훈 담임목사의 말씀, 송영범 장로의 장로기도문, 수료식, 장로합창단의 축하, 박종길 목사의 축사 및 축도, 조별 나눔, 축복과 선물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진정한 장로상은 면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며 장로아카데미를 수료하는 장로들을 축복했다. 12주 동안 진행된 장로아카데미에는 39명의 장로들이 참석해 참가자 전원이 수료했다. 10명이 개근상, 참가자 모두가 성경1독 통독상을 수상했다.

이장로 장로는 장로아카데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어 있는 진정한 학습공동체”였다고 평가했다. 개



종강예배에서 장로들이 서로 축복하고 있다.

근상을 수상한 우상근 장로는 “영성을 다시 계발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시간이었다”면서 “내 삶이 예배와 복음이 되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장로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로아카데미는 장로들 스스로

기획하고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예수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장로가 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12주 동안 장로들의 영적 성숙과 리더십 개발에 힘써왔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대학청년부, 사랑애틀눔, 윈터캠프 실시

대학청년부가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사랑을 나눈다. 사랑애틀눔과 2016 윈터캠프를 실시하기로 한 것.

사랑애틀눔은 어제(3일)부터 시작됐다. W, 갈렙, 여호수아, 요셉, 길, J4U, 하늘공동체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가 쌀, 라면, 담요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12월 10일에는 Pole2 SNS, 허브공동체가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는 총 790가구를

찾아갈 예정이다.

2016 윈터캠프는 다문화가정을 섬기는 사역이다. 12월 10일부터 1박2일 동안 메이필드호텔에서 진행된다. 몽골국제학교 4, 5학년 40가정과 교사 2가정이 참석할 예정이다. 윈터캠프에서는 스키교실, 부모강의,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다문화가정에게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것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비전헌금에 대한 감사편지

존경하는 이재훈 목사님께.

그동안 평안하셨지요. 이번에 자운영센터와 엘림센터에 승합차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도와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편을 들었습니다.

청소년회복센터에 승합차를 마련해 드리기로 처음 생각한 것은 저의 첫 책인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를 출판하기로 했을 때입니다.

‘책이 많이 팔리면 각 센터에 승합차를 한 대씩 사드려야지’라며 작정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출판하고 인세를 받고 보니 회복센터의 운영비가 모자라 부득불 운영비에 모두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승합차를 사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8곳의 회복센터에 승합차가 마련되었습니다. 감히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헌금으로 후원해 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큼니다. 그동안 승합차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어디든 마다않고 동분서주해 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성의를 보시고 아래의 분들이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1호 라파센터 / 남천로터리 기증
2호 반디센터 / 배정숙(나눔회) 기증
3호 예람센터 / 서재덕(농축산마트) 기증
4호 동지센터 / 서울 온누리교회 기증
5호 두드림센터 / 서울 온누리교회 기증
6호 새빛센터 / 서울 온누리교회 기증
7호 엘림센터 / 서울 온누리교회 기증
8호 자운영센터 / 주식회사 삼주(트리콜대리운전) 리스

도와주신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꼭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를 빕니다.

/ 천종호 판사(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온누리 워십콰이어 단원 모집

온누리 워십콰이어에서 단원을 모집한다. 매월 마지막 주일 4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가대실(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1층)에서 오디션이 실시된다. 오디션에 올 때는 남자는 ‘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시라’, 여자는 ‘부르신 곳에서’를 준비해오면 된다. 찬양에 관심 있는 온누리교회 등록 세례교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온누리 워십콰이어는 서빙고 주일 4부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이다. 매주 주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 매주 수요일에는 오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연습한다.

문의: 010-2448-0502

서빙고 Basic QT 12월 27일 개강

서빙고 Basic QT 세미나가 12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4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1호에서 진행된다. 큐티를 처음 접하는 성도나 삶에 적용하길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

Basic QT 과정은 큐티는 무엇입니까, 큐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큐티 나눔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큐티 나눔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싱글맘을 위한 음악회 ‘내림과 올림’

12월 17일 오후 4시 양재 기쁨홀

사회선교부 맘애틀눔이 주최하는 싱글맘 가정을 위한 음악회 ‘내림과 올림’이 12월 17일 오후 4시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진행된다. 세룡이네, 구세군 두리흠 등지에 거주하고 있는 싱글맘 40명이 참석한다. 음악회에는 난타, 재즈밴드, 뮤지컬찬양팀, 클래식 앙상블, 여호수아

청년부 워십팀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남경화 권사(맘애틀눔)는 “세상의 편견 속에서도 열심히 자녀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들과 아이들에게 작은 위로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의: 010-3201-6297

/ 김영선 기자

인천 순장사관학교 참가자 모집

12월 11일부터 매주 주일 15시 30분

인천 순장사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12월 11일부터 1월 22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3시 30분 인천 프리스페이스 3층 경관홀에서 열린다. 예비순장이나 순장사관학교를 수료하지 않는 부순장이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이나 인천 온누리교회 목회지원실로 전화하면 된다. 회비는 2만원.

순장학교를 수료 하려면 지켜야 할 다섯가지 수칙이 있다.

첫째, 훈련기간 중 순모임 2회 인도, 둘째, 현 순장님에게 실습확인서를 받아 제출, 셋째, 매일 <생명의 삶>으로 큐티한 노트 제출, 넷째, 순장학교 필독서 2권 독후감 제출, 다섯째, 순장사관학교 수료 일주일 전에 간증문 제출. 문의: 032-437-9686

서빙고 주일예배 예배사역자 헌신예배

오는 12월 7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예배사역자 헌신예배를 드린다.

올 한 해 동안 서빙고 주일예배를 섬긴 모든 봉사자와 스태프들을 격려하고, 교제를 나누는 위로와 화합

의 장(場)이다. 예배사역자 헌신예배에서는 주차사역, 챔버, 예배 안내에 이르기까지 서빙고 주일예배를 섬기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도 특별히 상영할 예정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요양센터, 기쁨의 세례식

지난달 22일,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기관 온누리요양센터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 온누리요양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순수(81), 윤희재(80) 어르신이 세례를 받은 것. 이날 세례식은 양지 온누리교회 조성광 목사의 집례로 진행됐다. 윤

희재 어르신은 오랫동안 불교신자였다. 두 딸의 소원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는데 이날 이뤄졌다. 김순수 어르신의 아들과 며느리도 어머니가 세례 받는 모습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류모세 선교사와 함께하는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가 열린다. 이스라엘 구약성경 투어(2017년 1월 21일~29일)와 터키·그리스 신약성경 투어(2017년 2월 26일~3월 5일)가

바로 그것이다.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는 투어 기간 동안 매일 아침 1시간 30분씩 성경공부를 한 다음 현장을 답사하는 아카데미 코스이다. 문의: 010-4902-1022

■ 임직자 간증



/ 이병태 집사(대전 온누리교회)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스무 살 때 군사관학교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나의 신앙생활은 주일 성수만 지키는 종교생활에 불과했다. 나의 중심은 여전히 주님이 아니었다. 나였다. 그래서였을까. 내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큰딸의 잦은 병치레와 교통사고로 하마터면 생명까지 잃을 뻔 한 일도 있었다. 아찔한 순간들이 불청객처럼 찾아왔다. 그런데도 참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했다. 그저 구원 받았다는 타이틀만 쥐고 있었다.

아내와 두 딸은 달랐다. 선교에 관심이 무척 많았다. 선교라면 발 벗고 나섰다. 가족들 덕분에 선교에 눈을 뜨기 시작할 때 다니던 교회에서 갈등이 생겼다. 우리 가족은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를 찾다가 대전 온누리교회에 오게 됐다.

새신자반에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고, 순장학교와 OBC 교육도 받았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하나님의 성품, 이사야 등의 강의를 들으면서 말씀되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었다. 수요일과 주일 저녁에는 성경사전을 찾아 가면서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수

록 교회의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리더로 나아가고 싶은 열망이 생겼다.

올해 임직자 스쿨에 입학했다. 임직자 스쿨에 참여하면서 창공을 나는 비행기가 중간 기착지에서 급유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계를 품은 리더로서, 일터에서의 영성과 행복한 가정을 위한 리더로서 동일하게 섬겨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 중에서도 최도성 장로님의 일과 영성에 대한 강의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내가 있는 직장, 교회, 가정에서 더 낮아지고 더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시는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을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심을 알 수 있었다. 공동체에 허락하신 선교비전을 이루는데 쓰임 받는 합당한 신부가 되기를 소망한다. 부족한 나를 사용하여 주신 것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온누리교회가 성령님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는 종이 될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비전을 품고, 궂음을 향해 달려가며 능동적으로 사역하기를 소망한다.

■ 러브소나타 오사카 간증



/ 김지연 성도(온누리 워십콰이어)

함께하라, 기대하라, 순종하라

30~40대, 사회와 가정에서 안정되지 않았고 가장 바쁜 시기다. 워십콰이어(서빙고 4부예배 찬양팀)는 그 바쁜 30~40대가 모여 춤추고 찬양하는 팀이다.

6박 7일 동안 러브소나타 오사카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걱정이 앞섰다. 머릿속에 회사와 가정이 가장 먼저 떠올랐기 때문이다. 과연 몇 명이나 참석할까. 휴가는 어떻게 낼까. 배우자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주셨다.

“함께 하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러브소나타를 준비했다. 그런데 회의를 시작한 순간 그 자신감이 무너졌다. 교회에서 짜주는 일정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항공, 숙박, 식사, 교통수단, 공연 등을 우리가 알아서 준비해야 했다. 앞이 캄캄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기대하면 되는 것이었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렇다고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일정은 물론이고, 항공권 발권, 무엇보다 월급쟁이들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이 늘어났다. 우리가 고민할수록 일이 미궁으로 빠졌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라고 알려 주셨듯이 앞으로의 일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릴레이 기도를 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주셨다.

“순종하라.”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아이처럼 잠잠히 순종했다. 순종이 평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 곁에 서 계신 것처럼 해결책을 주셨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게 되는 훈련이었다.

출발 전날까지 회사에 곤란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가족이 아프거나 소천하고, 중요한 미팅이 갑자기 생겼다. 우리를 막아서는 일들이 계속 발생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발을 맞추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주님께 기댔다. 오사카에서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천국을 경험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까지 예상하시고 만져주신 주님을 찬양한다. 이제 하나님께 받은 천국이라는 선물을 일상에서 나눌 차례이다.

■ 64기 성령수련회 간증



/ 차윤선 성도(신용산공동체)

“아버지 사랑해요!”

성령수련회가 끝나고 간증을 써달라는 부탁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고민을 거듭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려달라는 간구였다. 남들에게는 간단한 고백일지 모르겠지만 나에게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에게서는 결혼할 나이가 된 딸이었다. 딸의 혼사에 흠이 될 수 있는 이야기는 피하고, 가능한 아름다운 이야기만 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내린 결론은 분명해졌다.

“네, 아버지 담대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은 5년 전이다. 나 혼자 힘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힘겹게 인생의 파도를 헤치며 살아왔다. 신이란 존재를 믿지도 않았고, 신에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했었다. 그런 내가 믿음생활을 시작하면서 큰 벽이 하나 있었다.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

그 다음 말이 도저히 나오지 않았다. 내 인생의 아버지는 분노와 원망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

장 나쁜 단어가 아버지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할 때 “주님”, “주여”라고 불렀다. 그래도 성경에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눈에 밟혀 힘겹게 노력해왔다. 그런데도 가슴에 응어리가 남아있었다.

“혹시 방언이란 것을 할 수 있게 될까?”

그 기대감으로 성령수련회에 참가했다. 수련회 첫날 밤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 방언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달리 내 입에서 나온 소리는 “아버지 사랑해요!”라는 절규에 가까운 울부짖음이었다. 내 평생 그렇게 크게 소리쳐보기는 처음이었다. 그렇게 “아버지 사랑해요”를 10분 정도 외쳤더니 가슴속 응어리가 풀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졌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도 원하던 주기도문을 아무 거리낌 없이 외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머뭇거렸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입으로만이 아니라 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 수원 베이직 큐티 과정 수료 간증



/ 김남수 성도(수원 동누리)

살아있는 QT

교회에서 큐티생활을 강조해서 하기는 했다. 큐티가 뭔지도 모르고, <생명의 삶>에 적혀있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던 차에 순장이 되었고 2년 동안 순예배를 인도하면서 나의 영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베이직 큐티 과정이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순원들에게 다함께 들으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방법을 배우자고 제안했다.

첫 강의에서 큐티는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내게 말을 걸어오시면 그것에 대해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 내가 생각했던 ‘조용한 시간’ 혹은 ‘묵상’과는 다른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내 느낌과 생각을 중심으로 큐티를 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숙제를 하려고 본문을 유심히 읽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그 본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말씀의 씨앗이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질문을 만들어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귀 기울였다. 그런

데 아무리 기다려도 별 말씀이 없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이유는 내 소음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하루의 시작을 조용한 장소에서 큐티로 시작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서 퇴근할 때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 다음날 말씀을 미리 QT를 하기로 결심했다. 조용한 장소에서 말씀씨앗을 붙잡고 기다려보았다. 무엇인가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너는 왜 나를 묵상하지 않고 네 힘든 환경을 묵상하고 있니?”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을 묵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무리 적용하려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말씀씨앗이 시작점이 되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느껴지는 것들을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살아있는 큐티를 할 수 있었다. 베이직 큐티 과정을 통해서 큐티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제 날마다 더 깊이 있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 질 것이다.

장로칼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디자인이 나오랴?



한백진 장로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교수)

요즘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 흔한 말로 ‘개천에서 무슨 용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듯이 나사렛은 먼 변방 지역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이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환경 역시 신분과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금수저와 흙수저 이야기도 나사렛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빗대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요 1:46)라고 말한 표현이 어색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의 교회도 이 모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교회의 리더십을 뽑는 회의는 물론이고, 방송에서도 쫓사나운 모습을 자주 접한다. 교인들 사이에서는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지, 직분은 무엇인지, 신분을 과시하기도 한다. 사회의 신분이 교회의 신분으로 보이는 웃음거리가 현실이다.

내가 온누리교회의 디자인팀을 구성하고 사역할 때도 ‘교회에서 사치스럽게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바라보는 눈총이 있었고, 교회 밖에서는 ‘교회 디자인이 뻔하지 뭐 할 게 있느냐’고 비아냥거렸다.

교회에 디자인 문화가 들어오면서 카페와 문화 공간이 생기고 세상과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었다. 그동안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들만의 리그(A League of Their own)가 되어 왔고, 스스로가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이분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온누리교회는 이에 대한 간격을 교회 문화공간으로 공유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였다.

교인들이 세상의 놀이터에서 놀지 아니하고 그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또 ‘세상에 살면서 세

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도 쉽지 않거나 그를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기에 나는 교회의 디자인을 세상의 디자인보다 훨씬 아름답게 보이고 싶었다. 세상이 내가 만든 디자인을 따라 할 정도가 되기를 원했다. 내가 만든 디자인으로 교회가 고무하고 쇠락하는 모습이 아니라 밝고 재미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다.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떠나는 곳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되기를 바랐다.

문화는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자 통로다. 어느 공동체, 어느 누구나 문화라고 불리는 환경에서 그 시대의 물질적·정신적 영향을 받는다.

나는 교회 문화가 유럽의 여러 기독교 국가들이 거쳤던 폐쇄적 전통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가치를 수용하고 디자인이라는 도구로 세상의 것들을 융합하기를 원한다.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 등 다문화 민족들의 유입 증가도 선교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얼굴색이나 출신 나라로 그들을 평가하는 우를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국 사회는 이미 저출산과 함께 빠르게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더불어 다매체 다채널로 인한 외국의 문화와 자본이 유입되고 있음도 알아야 한다.

내가 디자인하는 데 가장 가치를 두는 것은 ‘아름다운 교회 멋진 디자인’이다.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손가락질 받지만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도 ‘교회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다. 멋진 디자인으로 목회를 돕고 교회는 즐겁게 안식하고, 가치 있는 삶을 배우는 곳으로 보이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 멋진 디자인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저항을 줄이며, 믿는 자들에게는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의 끊어진 관계를 잇는 다리가 되었듯이 디자인 또한 세상과 교회에 소통의 다리가 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

권사칼럼

내 사랑 일대일 제자양육



이순희 권사
(성북공동체)

나는 1998년 온누리교회에 왔다. 일대일 제자양육이 한창이었다. 나도 오자마자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았다. 신앙생활을

재정비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대학생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보니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죄인은 저 사람이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내가 죄인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도 얻었다. 그동안 제대로 모르고 믿었던 것이 정리되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신앙의 건전한 토대를 마련해주는 기초 작업과 같다. 기초가 튼튼히 세워지고,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니 성경공부의 깊이가 생긴다.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이외에도 일대일 제자양육의 좋은 점이 정말 많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이다. 연약한 지체를 만나면 내가 많이 주고, 성숙한 지체를 만나면 내가 많이 받는다. 한 번은 정말 지쳐 있었을 때가 있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이든 다른 사역이든 다 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일대일 제자양육 요청을 받고 한 집사님을 양육하게 되었다. 놀랍게도 동반자인 그 집사님이 지쳐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었다. 먼저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은 사람이 양육자가 돼서 동반자를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삶을 진술하게 나누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일대일 제자양육이었다. 그 이후로 교회에서 일대

일 제자양육 요청이 들어오면 주저하지 않는다. 무조건 한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얻는 것이 상호관계이기 때문이다.

내가 69세가 될 때까지 학교와 교회에서 초등학생부터 70~8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성도들과 일대일 제자양육을 했다. 나의 직업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기에 초등학생들에게 특히 관심이 많았다. 순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기도 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방법 등을 가르쳤다. 그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보람되고 뿌듯했는지 모른다.

청년들과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서도 보람이 있었다. 청년들은 재생산이 가능하기에 더욱 기대가 되었다. 그들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서 동반자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 바로 유대인 곧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이 유대인을 통해 기록되었음에도 현재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 로마서를 보면 신령한 빛을 켜고 육적인 것으로 갇혀있다고 했다. 유대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성경이 재미가 없고 지루하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써놓은 책이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성경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생활을 재정비하는 프로그램이다. 말씀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과정이다. 많은 성도들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신앙에세이



여성민 목사
(전도사역본부)

기이다.

바로 그 50대를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요즘은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50대들 사이에서도 적극적인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폭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문

화가 형성되었다. 50대들의 활발한 교류를 전도로 이어지게 하고자 이번 맞춤형도집회를 기획했다.

버킷리스트는 일생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적은 목록을 의미한다. 이번 맞춤형도집회의 주제를 버킷리스트로 정한 이유는 한평생 소중한 인연을 이어온 친구에게 예수님 전하는 일을 버킷리스트에 쓰자는 것이다. 동시에 전도를 받은 친구의 버킷리스트에 ‘영원히 예수님을 믿기’라고 적하기를 소망하였다.

맞춤도집회 버킷리스트는 11월 7일과 14일에 이어진 요청자들의 기도모임으로 시작되었다. 요청자들의 기도와 스태프들의 섬김이 어우러진 본 집회에서는 전도대상자들의 마음을 활짝 여는 프로그램들이 이어졌다. 7080시

대들의 우정과 학창시절을 추억할 수 공연과 식사, 추억의 양은 도시락, 달고나 뽑기, 7080 고교 교복 포토존, DJ 음악박스 등이 등장했다. 영원한 오빠 세시봉 윤형주의 찬양과 간증, 50대 개그우먼 이성미의 추억공감 토크, DJ 김수현과 강석우가 진행한 사연과 신청곡 소개, 50대들에게 힘과 용기를 준 브라스통과 온누리교회 열린예배 찬양팀의 연주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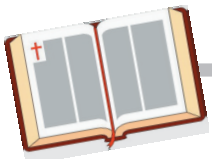
가수 윤형주는 톱스타 시절 찾아온 고난 속에서 만난 진정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님은 죄의 본성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속죄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대 50대들에게 영적해갈의 물꼬를 터 주었다. 친구가 써온 편지를

읽어주는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온누리교회 맞춤형도집회는 맞춤형도, 열린예배, 온누리전도학교, 전도폭발, 군선교, 병원심방, 호스피스 사역팀 등 전도본부 산하 모든 사역팀들이 협력해서 준비한다. 이번 맞춤형도집회에는 총 402명(요청자 171명, 전도대상자 231명)이 참석했다. 그 중에서 81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115명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집회는 끝났지만 공동체 전도사역자들과 요청자들의 기도는 계속된다. 이번 맞춤형도집회에서 예수 믿은 친구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안내할 것이다. 12월 중에는 세례교육과 세례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버킷리스트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만족의 기쁨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후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원함으로 순수한 제물을 준 것입니다. 빌립보교회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후원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교육하면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교회를 예로 듭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헌금을 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은 힘닿는 대로 했을 뿐 아니라 힘에 부치도록 자진해서 했습니다. 그들은 이 은혜와 성도 섬김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헌신했습니다”(고후 8:2-5절).

이것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넘치게 했습니다. 그들은 힘닿는 대로 했을 뿐 아니라 힘에 부치도록 자진해서 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 모금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위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열심히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교회이고, 가장 더디게 참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빌립보교회는 가난한 교회이고, 고린도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다 못해 빌립보교회를 예를 들어 고린도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강릉 아산병원 원목으로 계시는 김상훈 목사님과 윤정희 사모님이었습니다. 그 분들은 10명의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예전에 〈사랑은 여전한 사랑이어서〉라는 책을 출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이 절판되어서 더 이상 나오지 않

습니다. 제가 그 책을 두란노에 소개해서 다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다시 나오고 나서 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읽니다.

“책이 꾸준히 독자들의 손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쇄도 찍었다는 말도 들었고요. 책의 인세는 제 삶의 십일조라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CGNTV를 통해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십일조를 제외한 이 책의 인세 전액을 CGNTV로 흘려보내겠습니다. 전파선교의 귀한 뜻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을 어떤 분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소신 있는 기독교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문자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먹어도 열 개가 필요한 가정에서 이 책의 판매수익금이 얼마가 되든지 CGNTV에 후원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귀한 분입니다. 그 분의 마음을 접하면서 C.S.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기독교적 사회란 자선을 할 때 우리가 여유 있게 줄 수 있는 정도보다 조금 더 주는 사회이다. 자선에 쓰는 비용 때문에 가계가 빠듯해지거나 제한받는 일이 전혀 없다면 너무 적게 주고 있는 것이다. 자기는 하고 싶지만 자선에 돈을 쓰느라 못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C.S.루이스가 제시한 기준입니다. 그 사모님이 이것을 직접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사도 바울의 삶의 비결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

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19절).

무디는 이 구절을 ‘자신의 은행’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은행장은 하나님이고, 지점장은 예수님입니다. 이 은행의 자산은 영광스러운 정도로 풍성합니다. 대출한도는 ‘모든 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쭉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마 6:30).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젊어서나 이렇게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시 37:25).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했습니다. 신학교에 가는 것을 주위에서 이해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나의 모든 욕심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욕심을 구하면서 왜 안 채워주시느냐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는 만족의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니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딤후 6:6-8).

이 만족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다른 영혼을 섬기고, 채우고, 복음전파를 위하여 연약한 이들을 섬기고, 도우며 사십시오. 그것이 만족의 기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삶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차세대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성경 인물 이야기 7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이스라엘의 제3대 왕 솔로몬은 영웅 설화의 주인공으로서의 조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의 어머니는 솔로몬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을 거예요. 전쟁 중이던 어느 날, 왕궁 지붕 위를 한가로이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본 다윗 왕이 타오르는 욕망으로 밋세바(Bathsheba)라는 유부녀를 품어버렸어요. 왕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충직한 신하 우리아(Uriah)에게 보답은커녕 아내를 빼앗아버렸지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솔로몬(Solomon)이랍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열 번째 아들로 왕위 계승 서열상으로는 왕이 될 수 없는 위치였지만, 다윗의 지명으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후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려 하나님의 응답으로 지혜와 부와 영광을 받았어요. 7년 만에 성전을 건축했고, 13년 간 왕궁도 건축했어요. 외교와 무역에도 탁월함을 보여 3년마다 상선을 보내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등을 수입할 정도로 당시 가장 부강한 군주였어요(대하 9:21). 중동 전체를 지배하면서 그 일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백성들은

풍요와 안락을 누렸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솔로몬의 지혜는 어마어마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수많은 저작과 업적을 남겼어요. 천문학, 수학 분야의 최고라고 불리던 아라비아 동방계 사람들을 능가했고, 건축술과 법률 분야의 최고였던 이집트인들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문학은 또 어땠나요? 전도서와 지혜의 보고인 3,000개의 잠언을 말했고, 아름다운 사랑이야기 아가서 1,005곡의 노래를 지었으며, 식물과 동물에 대한 분류도감을 발표하기까지 했어요(왕상 4:29-34).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한 수 배우겠다고 줄을 지어 물려올 정도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토록 뛰어난 솔로몬을 잔인하리만큼 단호하게 평가해요. 초반에 잠깐 반짝하다가 결국 나라를 송두리째 망친 왕으로요. 정치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실패한 지도자라고 혹평을 쏟아내요. 가증한 우상을 들어요. 그런데 앞장선 왕이자, 백성들의 생활을 도탄에 빠뜨렸고, 이스라엘 최고의 비극이라 할 수 있는 남과 북의 분열을 조장한 왕으로 평가해요. 어찌 보면 솔로몬 왕가의 몰락은 예고된 것

인지도 몰라요. 절대 탐내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탐냈기 때문이지요.

첫째,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해 많은 말(馬)을 탐냈어요. 솔로몬은 상상을 초월한 말 수집광이었어요. 솔로몬 병거의 말 외양간만 4만개였고, 마병만 1만 2천 명이었다고 하니 말 다했죠?(왕상 4:26). 게다가 궁정의 요리사들이 솔로몬의 밥상 뿐 아니라 말과 준마들에게 먹일 보리와 꼴도 공급했다고 해요. 굶주린 자들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솔로몬의 말 모으는 취미를 기뻐하셨을까요?

둘째, 솔로몬은 아내를 탐했어요. 탐내도 너무 탐냈어요. 부인과 첩이 무려 1천여 명에 달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지요.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첩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의 마음을 둘러놓았다고 말하고 있어요(왕상 11:3). 대부분 이방 땅에서 온 여인들이기 때문에 이방 우상들이 온 이스라엘로 삼시간에 퍼져나갔음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거예요.

셋째, 솔로몬은 은(銀)과 금(金)을 탐냈어요. 얼마나 보석을 많이 모았는지 왕궁의 모든 집기는 금과 은으로 가득 찼어요. 솔로몬의 술잔

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에 있는 그릇들도 모두 순금이었다는 기록만 보더라도(왕상 10:21) 왕의 사치를 대략 짐작케 해요.

한 나라의 지도자인 왕은 너무도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보다 5백여 년 전에 경고하셨어요.

“왕은 자신을 위해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말고 말을 더 얻으려고 이집트로 백성들을 보내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는 그 길로 다시 가지 말라’고 하셨다. 왕은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왕은 또한 은과 금을 많이 모아 두지 말라”(신명기 17:16-17).

모세오경이었던 이 말씀을 솔로몬은 분명히 수십 수백 번 읽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 금과옥조(金科玉條)를 무시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왕에서 가장 어리석은 왕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곽상학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솔로몬, 과연 지혜의 왕인가? ①